유아교육 - 보육 통합에 대한 영유아 부모 의견 분석

김은설 육이정책개발센터 부연구위원

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는 설립 원년인 2005년 이래, 그간 이원화된 체제로 각각 발전해 온 유아교육과 보육을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협력과 통합의 방향으로 새롭게 전개해 가기 위한 방안 연구를 꾸준히 해 왔다. 2006년에는 '육아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유 아교육과 보육의 통합과 협력 방안 (이옥 외, 2006[®]) 보고서를 발표하였고 2007년에는 '유치원과 보육시설 협력 방안 여구' (문무경 외, 2007°)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금년에는 '유치원과 보육시설 일원화를 위한 협력과 통합 방안 연구 (유희정 외)가 진행 중이다. 연속적인 연구들을 진행함으로써 유아교육과 보육이 보다 효율적이고 수요자 중심적인 방향으로 함께 나이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고, 통합을 위한 이상적인 모델뿐 아니라 현실적 방안을 같이 제시하기위해 노력해 왔다. 지금까지의 접근방식은 유아교육 과 보육의 일원화 통합을 지상 목표로 보았을 때 현재 상황을 통합으로 이끌어갈 주체가 어떤 정부부처가 되어야 할 것인지라는 체제 통합적인 측면과 기관ㆍ시설 설비, 재정, 교 육과정, 교사 등은 어떻게 일워화되어야 하는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세부 조정사안들을 제시하는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합리적 정당성과 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및 관계(官界) 전문가와 워장(시설장), 교사 등 현장 관련자를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책의 실제 수요자인 영유아 및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유치원과 보 육시설의 통합이 필요하지, 필요하다면 어떻게 통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조사는 실시된 적이 없었다.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정부의 입장과 서비스의 공급주체가 되는 유치 워 및 보육시설 현장의 입장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전책의 수요자

1)이옥, 김은설, 신나리 , 문무경, 최혜선(2006) 육이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유이교육 · 보육의 협력과 통합 방안 육이정책개발센터 2)문무경 , 이윤진, 이세원(2007) 유치원과 보육시설 협력 방안 연구 육이정책개발센터

인 영유아와 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올바른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중요한 일이 다. 백년대계의 초석이 될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올바른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또 하나의 잣대를 마런하겠다는 취지에서,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본 육아정책개발센터가 최근 실 시한 유아교육 · 보육 일원화 의견조사의 주요 결과를 여기에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 학부모 의견조사 개요

가, 표집 및 조사방법

본 의견조사는 대도시(653명, 43.5%), 중소도시(712명, 47.5%), 읍면 지역(135, 9.0%) 등 지역규모를 고려하여 총 1,500명의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2008년 11월 10일부터 24일 까지 2주간 걸쳐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은 자녀가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중 한 곳을 다니는 영유아부모로 제한하였다. 조사방법은 전화조사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자녀가 유치원 또 는 보육시설을 다니는 학부모를 무작위로 찾기가 힘들어 지역별로 조사원을 파견하여 해 당 가구를 찾아 설문지를 완성하도록 하는 방법도 보충적으로 사용하였다.

나 조사 참여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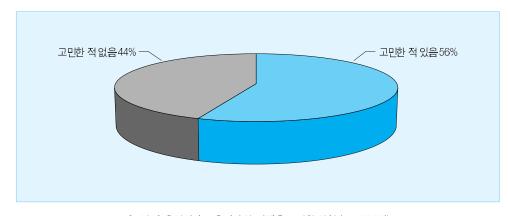
의견조사에 참여한 영유아부모의 특성을 보면, 만3세 미만의 영아 부 또는 모가 69명 (4.6%), 만3세 이상 유아 부 또는 모가 1.431명(95.4%)으로 유아의 부모가 대부분이었다. 이들의 자녀는 50.1%정도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고 나머지 49.9%가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었다. 참여 부모의 연령은 20대가 5.0%, 30대가 83.4%, 40대가 9.8%, 50대가 1.8%로 나 타났으며 소득수준은 월소득 200만원 미만이 10.9%,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27.8%,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 35.6%, 400만원 이상이 25.7%로 조사되었다. 학부모 들의 교육수준은 고졸이하가 39.1%, 대학교 재학이상이 60.9%였다.

2. 의견조사 결과

가, 유치원과 보육시설간 차이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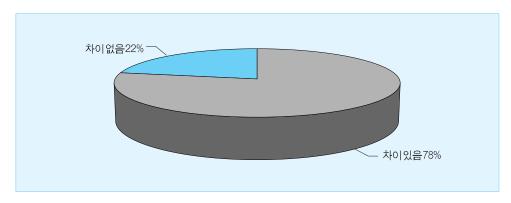
우선, 자녀를 유치워에 보낼지 보육시설에 보낼지 고민해 본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질

문에서 1,500명 중 과반수인 55.7%가 고민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을 하였고 44.3%가 고민 없이 한 곳을 선택하였다고 답하였다. 고민을 한다는 것은 각 기관 또는 시설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과 기타 관련 사항들을 고려하여 선택을 결정한다는 뜻으로 유이교육과 보육의 이원화가 수요자에게 있어 선택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염려가 현실적인 문제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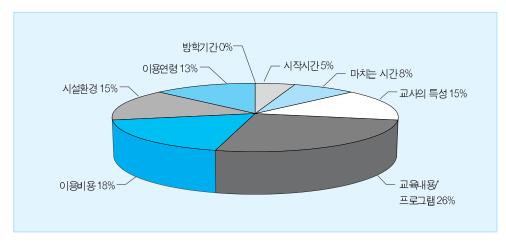
[그림 1] 유치원과 보육시설 간 선택을 고민한 경험 (n=1,500명)

다음으로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78%가 차이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22%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1,500). 차이가 있음을 알고 있는 경우가 78%라는 사실은 바람직한 결과이기는 하나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는 의견이 22%라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시사를 갖고 있다.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현재 다니고 있는 자녀의 부모이면서도 22%가 차이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현장의 차이를 실감하지 못하는 비율이 1/5이 넘는 다는 뜻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자녀가 유치원에 다니는 부모와 보육시설에 다니는 부모 간에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차이에 대해 인지하는지를 비교해 보았을 때 유치원생 부모는 17.4%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비해 보육시설을 다니는 아동의 부모는 26.6%가 '차이가 없다'고 응답해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의 경우 더욱 그 차이를 못느끼는 듯한 결과를 보였다(X=21.9, p<.001).



[그림 2] 유치원과 보육시설 간 차이의 인식 (n=1,5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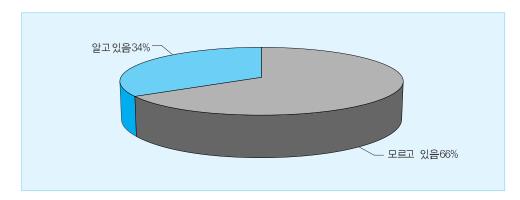
유치원과 보육시설 간에 차이가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n=1,170),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가장 많이 나온 응답은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80.2%)이었고 '교육비와 보육료' (53.9%), '시설 및 환경' (46.2%), '교사의 특성' (44.1%), '이용 연령' (38.5%)의 순이었다. '방학기간' (0.1%)이나 '시작시간' (14.4%) 등은 가장 낮은 비율로 선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대해 교육내용이나 프로그램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는 영유아 부모가 대부분임을 보여주었다. 다음 [그림 3]은 부모들이 생각하는 차이나는 항목들을 도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3] 유치원과 보육시설 간 차이의 구체적 내용 (n=1,170명)

24 | 육아정책포럼 유아교육·보육 통합에 대한 영유아 부모 의견 분석 | 25

유아교육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보육은 보건복지가족부가 관할하고 있는 이원화된 영역임을 영유아의 부모가 알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관할 부처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n=1,500). 이에 대해 60.5%가 이원화된 부처 관할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39.5%가 모른다고 응답하여, 10 중 4명의 부모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행정적이원화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부모 연령이나 자녀가 다니는 기관유형, 지역 등과 무관하게 비슷한 응답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기관을 이용한 시기가 길고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관할 부처의 차이를 알고 있는 비율이 높아졌다(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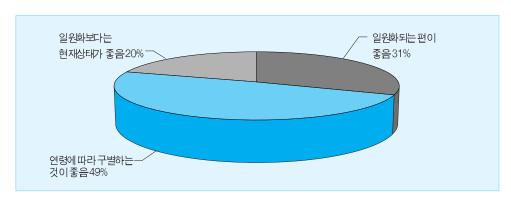


[그림 4] 유치원과 보육시설 관할 행정부처의 현행 이원화 인식 (n=1,500명)

나.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에 대한 의견

영유아 부모에게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하나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논의에 대해 의견을 절문하였을 때, 30.7%가 일원화되기를 원한다고 답하였다(전체 n=1,497). 그러나 가장 많이 나온 응답은 '연령에 따라 구별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으로 49.1%를 차지하였고, 19.9%는 현재상태를 선호한다고 답하였다(그림 5] 참조). 구체적인 연령 구별을 질문하거나 응답하지는 않았으나 연령별 이원화를 원하는 비율이 가장 높이 나온 것은 현재 학자들간 지배적인 의견이 되고 있는 '일원화 통합' 과는 차이가 나는 결과로, 보다 심층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응답비율은 부모의 소득수준이나 자녀의 연령과는 무관하였으나 자녀가 보육시설을 다니는 경우 일원화를 원하는 비율(34.3%)이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27.3%)보다는 높았고,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의 연령별 이원화 찬성 비율이 (55.1%) 보육시설에 자녀가 다니는 부모의 연령별 이원화 찬성비율(46.9%)보다 높았다.

또한 기관 이용기간이 길수록 일원화를 원하는 비율이 높고 현재의 이원화를 선호하는 비율이 낮아졌다(〈표1〉참조〉, 부모의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연령별 이원화를 비율이 높았고 도시지역보다는 읍면지역에서 통합일원화를 지지하는 비율이 낮고 연령별 이원화를 선호는 비율이 높았다.



[그림 5]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통합에 대한 의견 (n=1,497명)

〈표 1〉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통합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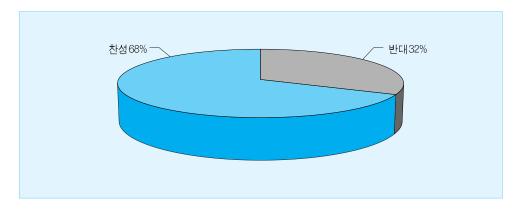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통합일원화 선호	연령별 이원화선호	현재 상태선호	계	x2(df)	
전체	30,7	49,1	19,9	100.0(1,497)		
이용기관 유형						
유치원	27,3	51,6	21,1	100,0(750)	8,5(2)*	
보육시설	34,3	46,9	18,9	100,0(747)		
기관이용 기간						
1년 미만	26,4	48,4	25,2	100,0(246)		
1~2년	30,8	46,3	22,9	100,0(389)	12,7(6)*	
2~3년	31,0	50,8	18,2	100,0(510)		
3년 이상	33,5	50,9	15,6	100,0(352)		
 부모 학력						
고졸 이하	36,6	44,7	18,7	100,0(582)	14,7(2)**	
대재 이상	27,2	51,9	20,8	100,0(907)		
지역						
대도시	31,3	45,3	23,3	100,0(651)	22,3(4)***	
중소도시	32,1	49,6	18,3	100,0(711)		
읍면	21,5	65,9	12,6	100,0(135)		

주: *p <.05, **p<.01, ***p<.001.

26 | 육아정책포럼 유아교육·보육 통합에 대한 영유아 부모 의견 분석 | 27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 교사의 통합에 대해 의견을 조사하였다. 먼저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이 달라야 한다고 보는지 동일해야 한다고 보는지를 질문하였을 때(n=1,500), 67.9%가 두 교사의 자격은 같아야한다고 응답하였고 32.1%가 차이나는 자격기준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비율은 자녀가 유치원에 다니는지 보육시설에 다니는지에 따라 유의미하게 달라졌는데 (p<.001), 자녀가 보육시설에 다니는 부모의 경우는 약 74.4%로, 자녀가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교사의 자격기준이 동일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한 비율(61.5%)보다 더 높게 나왔다.



[그림 6]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동일화 (n=1.500명)

한편 영유아의 부모들이 생각하는, 가장 적절한 교사의 학력을 조사해보았다. 현행의 교사 유형과 함께 앞으로 가능한 유이교육과 보육의 다양한 통합방식을 고려했을 때교 사유형을 유치원교사, 보육시설 영아 담당교사, 보육시설 유아 담당교사, 그리고 통합일 원화된 영유아교사 등으로 구분하여물었다.

유치원 교사에 대해서는 4년제 대졸 학력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73.4%, n=461), 보육시설 영아 담당교사에 대해서는 전문대 학력을(55.7%, n=481), 보육시설 유아 담당교사에 대해서는 대졸(45.1%, n=481) 또는 전문대 학력(41.0%, n=481)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합된 교사체계를 가정하였을 때 영유아 모두를 담당하는 교사(즉, 영유아 교사)에 대해서는 41.3%가 대졸을 선택하였고 39.3%는 전문대졸을 선택하였다(n=1,019).

이 항목의 응답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해당 응답자의 25.4%가 보육시설에서 영아를 전담하는 교사의 경우는 학력이 상관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영유아를 통합적으로 담당하 는 교사에 대해서도 13.8%가 학력에 상관없다는 응답을 하였다는 점이다(〈표 2〉참조〉. 보육시설 유아담당 교사나 특히 유치원 교사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비율로 학력무관 응 답이 나온데 비해 영아교사에 대해 학력을 고려치 않겠다는 응답비율이 높은 점은 영아 와 유아에 대해 기대하는 서비스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앞서 밝힌 바와 마찬 가지로 본 조사에는 영아의 부모가 충분히 포함되지 못한 점을 생각한다면, 영아 부모를 다수 포함하여 재조사 할 경우 다른 응답 비율이 신출될 수도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표 2〉 유아교육과 보육 담당 교사의 적정 학력 수준에 대한 부모 의견

단위: %(명)

구분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학력무관	계
유치원 교사	0,4	17,7	73,4	6,9	1,7	100,0(461)
보육시설 영아담당교사	10,6	55,7	8,1	0,2	25,4	100,0(481)
보육시설 유아담당교사	3,5	41,0	45,1	1,0	9.4	100,0(481)
영유아 교사	3,6	39,3	41,3	2,0	13,8	100,0(1,019)

다.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통합될 경우 어떠한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고 조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에 도움을 얻기 위하여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만족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만족도에 따라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및 협력을 위한 논의에서 개선 사항의 우선 순위가 달라질 수도 있다.

결과에 따르면, 가장 만족도가 높은 항목은 '교사의 성품 및 자질' 이었고 그 다음은 급·간식, 운영시간, 실내환경의 순이었다. 가장 만족도가 낮은 부분은 실외놀이공간, 부모·가정과의 교류, 교육·보육 내용 및 프로그램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만족도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을 통해 보다 상향조정하여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표 3〉 참조〉.

28 | 육아정책포럼 유아교육·보육 통합에 대한 영유아 부모 의견 분석 | 29

(표 3)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

단위: %(명)

구분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
운영시간	16,8	58,1	19.3	5,1	0,7	100,0(1,500)
실내환경	16,4	54,1	23,1	5,3	0,3	100,0(1,498)
실외놀이공간	12,4	43,4	28,3	13,6	1,7	100,0(1,491)
놀잇감, 교재기구	14,5	49,1	28,7	6,6	0,6	100,0(1,492)
교육/보육 내용 · 프로그램	14.4	57,1	22,5	5,2	0,1	100,0(1,491)
교사의자질	19,7	55,8	21,0	2,9	0.4	100,0(1,497)
건강/위생 및 안전 관리	15,9	54,3	25,3	3,9	0,3	100,0(1,496)
급/간식	16,9	51,7	25,1	5,5	0,3	100,0(1,493)
주변 환경	10,9	56,1	26,4	5,8	0,6	100,0(1,498)
부모교육및 가정과의 교류	13,4	55,3	25,9	4,7	0,5	100,0(1,498)

3. 결과에 대한 논의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유아의 부모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에 대한 수요자의 의견을 알아보았다. 대부분이 유아부모인 조사참여자들은 과반수가 유치원에 보낼지 보육시설에 보낼지 고만한 적이 있었고 유치원과 보육시설 간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80%에 가까웠다. 유치원과 보육시설 간에 가장 차이가 많다고 보는 부분은 교육내용과 프로그램이었고 교육비/보육료 등 비용의 차이에 대한 인식도 많았다. 따라서 부모들은 유치원과 보유시설 간에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부분에서 현실적인 차이를 알고 있었고 이에 따라 유아 자녀를 어디로 보낼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유치원과 보육시설간 프로그램이나 비용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기관(시설)을 관할하는 부처가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는 34%에 불과하여 둘 간 차이의 본질이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는 못함을 집작할 수 있다.

유치워과 보육시설의 통합에 대한 의견을 보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전체 통합 일원화보

다는 연령(영아 또는 유아)에 따라 구별된 이원화를 더 높은 비율로 선호하고 있었다. 과반수 이상이 유아 자녀을 보유시설에 보낼지 유치원에 보낼지 고민한 적이 있다는 앞의결과와, 연령에 따른 구별을 선호한다는 조사결과를 같이 비교해 보면 부모들은 연령이 중복되고 있는 두 기관(시설)의 선택에서 혼란스러워하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음을 추측할수 있다. 그러나 교사의 자격기준을 동일화하는 데 대해서는 68%가 찬성하였고 유치원이나 유아 담당교사는 보다 높은 학력을 갖출 것을 원하는 데 비해 영아담당이나 통합된영유아 담당 교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학력도 괜찮다고 보고 있었다. 유아교사와 영유아교사 간차이 즉, 연령별로 이원화된체제에서의 교사와 통합 일원화된 체제의 교사가 크게 다르게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들이 이상적으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3O|육아정책포럼 유아교육·보육 통합에 대한 영유아 부모 의견 분석|31